

## 2010년도 김정은 동향과 정치적 함의

박 형 중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1-07

현 북한 정세의 핵심은 김정은 후계 체제 구축 동향이다. 2010년에 북한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각종 대북정보매체가 전하는 소식들을 종합하여,<sup>1)</sup> 하나의 스토리를 구성해 보았다. 물론 이 스토리는 가설적인 것으로 반드시 확실하지 않은 별개의 소식들을 연결시킨 것이다. 따라서 비판적으로 읽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정세의 흐름을 판단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던 김정은 위상 및 충성 고양 사업을 제외하고 김정은과 관련되어 전해진 주요 소식을 종합해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09년 11월 화폐개혁을 김정은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화폐개혁이 초래한 경제 혼란과 주민 피해는 잘 알려져 있다. 화폐개혁이후 김정은은 지방기관과 무역회사들이 벌어들인 수입을 전면 상납하도록 했다(과거에는 60%). 화폐개혁이 초래한 경제 혼란의 과정 속에서 김정은은 2010년 1월 서해 포사격을 통해 긴장을 조성했고, 3월에는 천안함 공격에도 개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화폐 개혁에 의한 내부 혼란을 극복하는 데 중국의 도움을 빌리기 위해 김정일이 5월에 중국을 방문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경제호조가 없는 상태에서 후계자를 공식화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내부 긴장조성이 필요했다.

1) 여기에 사용된 북한 소식의 출처는 연합뉴스, 데일리NK, 자유아시아방송, 열린북한방송, NK 지식인연대, 임진강 등이다. 편의상 따로 각주를 달지 않았다.

화폐개혁 실시 직후인 2009년 12월 김정은은 국가안전보위부 사업을 인수받았다고 한다. 국가안전보위부는 권한이 높아져 사회와 군대를 모두 통제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한다. 내부 통제를 위해 김정은 주도로 ‘7.4 그루빠’가 조직되었다. 김정은은 “국가안전보위부가 책임지고 마약, 매음, 도박 및 불순 록화물(특히 섹스 비디오)를 뿌리 뽑으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그루빠의 활동은 너무 무자비했기 때문에 주민들 및 관료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여 2010년 7월 23일 해산되었다. 이후 국가안전보위부 사업은 김정일에게 회수되었다. 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가 개최될 때까지도 고위층 내부에서는, 김정은이 더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군부 노장 세력과 빨리 권력을 인계받아야 한다는 소장파 사이에 의견 차이가 존재했다. 타협책으로서 김정은은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머물렀다고 한다. 그러나 일단 당대표자회를 통해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김정은은 2010년 10월 24일 김정일과 함께 국가안전보위부를 시찰하고 기강해이를 질타했다고 한다. 그는 국가안전보위부 산하기관에 외화벌이 기관을 증설할 제의서를 올릴 것을 지시했다. 이를 보면, 김정은이 다시 국가안전보위부 관장을 김정일로부터 허용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각종 강력한 검열과 주민통제 활동이 2010년 11월경부터 갑자기 증대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김정은의 이름과 함께 거론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김정은의 활동이 11월 1일 국가배급 정상화 약속의 무실화,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 그리고 11월 물가급등 및 내부 경제상황 악화 시기와 겹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11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김정은의 주요 활동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정은은 11월 탈북 저지 및 색출을 위한 검열대를 파견했고, 이와 관련 5호 담당제를 3호 담당제로 바꾸었다. 김정은은 11월부터 보위사령부를 동원하여 함흥시에 대해 마약 집중 검열을 시행했다. 11월에는 무산, 혜산 등에서 뇌물수수, 불법밀무역, 주민탈북방조 등과 관련하여 비리간부에 대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역시 11월에는 김정은 등장 이후 사회기강잡기를 명분으로 돈줄관리 차원에서 보위사령부와 국가안전보위부가 주도하여 각 세관과 무역회사에 대한 강력한 검열이 실시되었으며, 아울러 ‘서비차’에 대한 단속도 진행되었다. 이 때문에 장마당이 침체되었다. 김정은은 아울러 11월 15일 국가안전보위부에게 북중 국경지역에서 한국 노래가 유포되고 있는 것을 엄중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12월 30일에는 탈북 방지와 주민반란 진압을 주 임무로 하는 인민보안부 타격대가 확대 개편되었다.

11월과 12월경 간부교체사업이 진행되어 도, 시, 구역 당 기관 및 기업소 당위원회의 60대 이상 간부들이 30-40대 젊은 층으로 교체되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또한 2010년 12월부터 보위사령부가 총정치국을 포함한 각 군단을 상대로 검열을 하도록 했다. 북한의 돈주들의 70%가 군부에 속해있으며, 대체로 총정치국, 총참모부 등 군부 우두머리들, 후방 및 정치 지휘성원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김정은은 국가안전보위부에 대한 2011년 첫 지시로 ‘방북 중국인 반탐 강화’와 ‘중국내 탈북자를 모조리 잡아들일 것’을 명령했다. 또한 국가안전보위부와 군부 합동으로 ‘마약단속 상무조’를 조직하여 2011년 1월 5일부터 활동시켰다. 1월 8일 김정은 생일에 즈음하여 무역기관들의 김정은에 대한 대대적 상납이 진행되었다.

2010년도 김정일과 김정은은 역할분담을 한 것 같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김정일은 경제현지지도에 열중하였다. 다시 말해 좋은 일만 하고 있는 모양새를 연출한 것이다. 그렇지만 김정은은 2010년도에 전개된 대부분의 주요 사건의 책임자라고 한다. 김정은의 역할은 반드시 주민과 엘리트들에게 호감만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체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굵은일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실제로 김정은이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의 중심에 서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렇지만 김정은의 위상이 고위층 내부에서 반드시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흥미로운 것은 이와 같은 김정은의 행보 속에는 김정일과 김정은의 관계, 고위층 내부의 이견상충과 기회주의, 중앙과 지방의 알력, 정권과 주민의 알력 등이 복합적으로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사된 것처럼, 이러한 복잡한 내부 상황이 2011년도 대남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